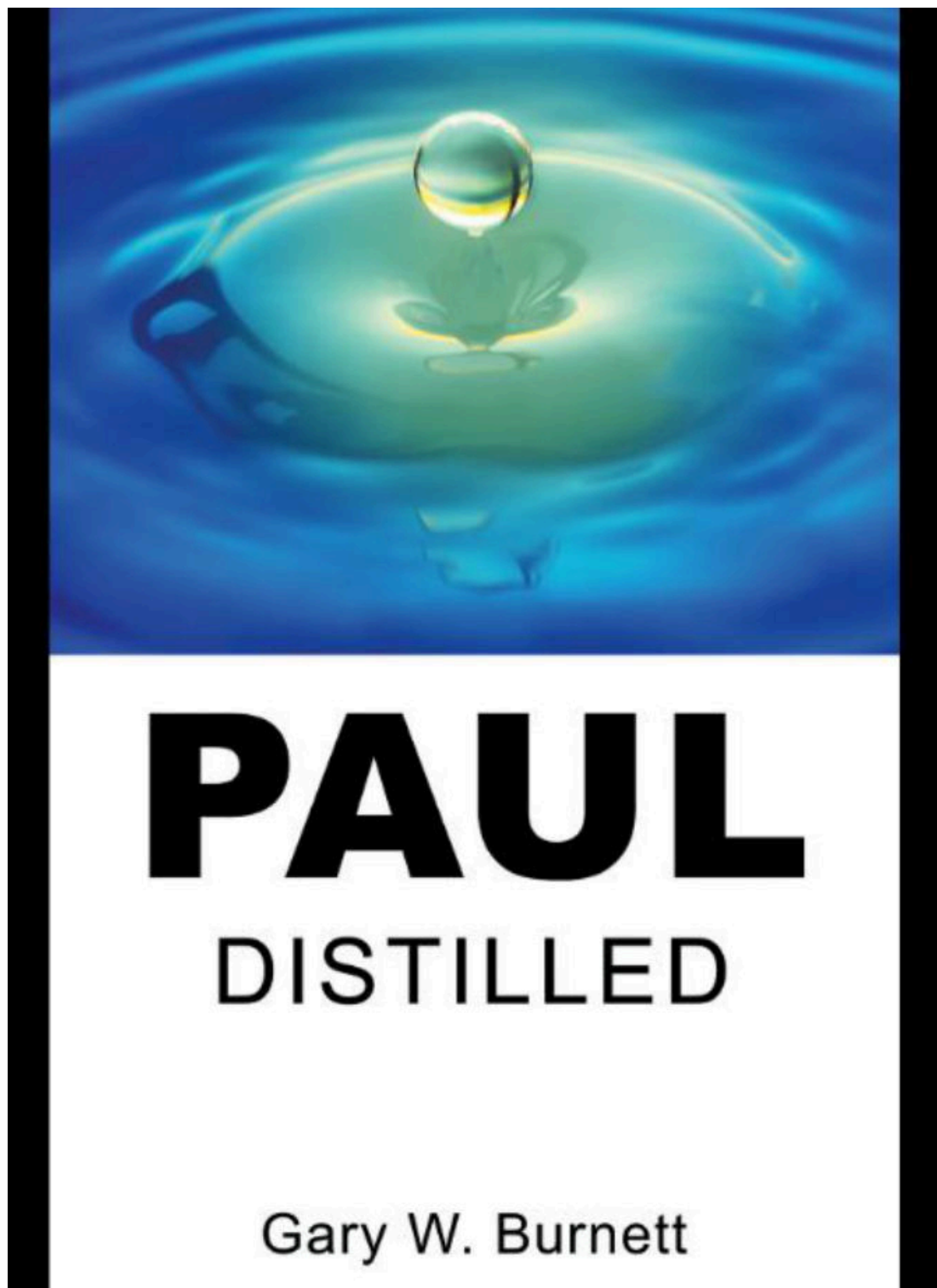


Paul Distilled by Garry W. Burnett

바울의 정수 (그의 사역과 메시지를 간추려)

게리 버넷(Gary W. Burnett)은 벨파스트(Belfast)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책을 소개합니다.

[Paul Distilled by Gary W Burnett - YouTube](#)

여기에는 각 장마다 짧고 추천할 만한 요약이 있습니다. [Fitzroy Sunday Nights - YouTube](#)

서론

제1장: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

제2장: 사랑은 동사다

제3장: 복음

제4장: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제5장: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다

제6장: 생명을 주는 성령

제7장: 예수, 세상의 유일한 참 주

제8장: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제9장: 급진적인 평화

제10장: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제11장: 두려움을 이기는 해독제

제12장: 바울과 지도자로서의 여성

제13장: 함께 세상을 바꾸기

제14장: 모든 것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바울과 지도자로서의 여성

주후 1세기의 여성

바울에게는 메시아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곧 새 창조는 차별이 없었고 모든 인간적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세계는 매우 위계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울 때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온전한 효력을 깨닫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들은 민족적 소속, 곧 누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사회적·경제적 지위, 곧 누가 노예냐 자유인이냐, 또는 성별, 곧 남자냐 여자냐에 근거한 구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세계에서는, 그의 고향인 유대교에서나 1세기 헬레니즘 문화 전반에서나, 여성은 2등 시민이었습니다. 여성 혐오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극작가와 철학자들은 대놓고 여성을 깎아내렸습니다. 에우리피데스(Euripides)는 여성을 “이 파멸의 피조물”이라고 불렀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여자를 “기형인 남자”로 여겼습니다. 몇몇 예외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전반적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여성은 대체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여자가 “모든 일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말했고, 유대인 철학자 필론(Philo)은 여자가 “본성상 불완전하고 타락했으며” 비이성적이고 “명예에서 남자와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세기의 시락(Sirach)은 “여자는 수치를 가져온다”고 말했고, 「르우벤의 유언」(Testament des Ruben)은 아주 노골적으로 “여자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 여자는 듣기만 해야 했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회중의 온전한 참여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세계였습니다.

바울과 여성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바울이 여성 문제에서 자신이 살던 문화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에 대한 바울의 관점이 그냥 완전히 낡았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 현대 세계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성차별주의자이고, 어쩌면 여성 혐오자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바울은 오직 남자만 교회에서 교사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증거로 인용됩니다. 오늘날에도 교단 전체가 여성을 지도에서 배제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완하는 존재일 뿐 동등하지 않으며, 결혼과 교회에서 권위를 가져야 하는 쪽은 남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이 두 견해는 모두 우리가 그의 편지에서 읽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1세기 세계를 오해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에게 여자와 남자는 서로 의존하며(고린도전서 11:11), 피차 복종해야 하고(에베소서 5:21), 결혼 안의 성적 관계에서 동등합니다(고린도전서 7:3). 바울에게 성령의 모든 은사는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여자든 남자든 모든 사람이 신령한 은사, 특히 예언을 사모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고린도후서 3:18).

더 나아가 바울이 여성을 사역의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게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였고 동등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동역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 “참된 동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여성들에게 이런 호칭과 함께 “여성 집사”, “지도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그리고 곧 보게 될 것처럼 “사도”라는 호칭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살던 세계와도, 오늘날 그를 흔히 묘사하는 방식과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바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밀어내려는 사람들은 보통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의 두 구절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울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출발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자기 유대 경전을 잘 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전에서 우리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지도자이자 음악을 이끈 미리암, 사사 시대에 나라를 크게 성공적으로 이끈 또 한 명의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요시아 왕이 모든 남성 선지자보다 먼저 찾은 홀다가 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또 이스라엘의 왕관을 쓴 여왕들 가운데 누구도 여자라는 이유로 지도자 역할 때문에 비판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이사야 40:9에는 여호와와 나라가 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여성 전도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 설교자를 분명히 여성으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독일어 번역 대부분에서 사라집니다. 시편 68:11에서는 다른 여성 설교자들이 전면에서 나섭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전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너희 딸들과 아들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려진 대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리에게 설명할 때 이 예언을 가져왔습니다. 또 시편, 이사야, 호세아, 신명기가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 여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바울은 자기 성경을 알았고,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인 여성 지도자, 여선지자, 여성 설교자의 강한 전통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세대와 이후 세대에게 크게 존경받은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말리엘은 여성을 매우 낮게 보던 바리새파 유대교의 다른 랍비들과 달랐습니다. 미쉬나(Mishna)에 전해지는 그의 말에서 가말리엘은 여성을 긍정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대하며, 여성의 안녕을 증진하고, 여성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그야말로 여성 혐오적이었던 다른 랍비 교사들과 크게 대조됩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의 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의 다른 교사들과 달리 여성들이 자기 발치에 앉아 배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성 제자들을 환영하셨고, 그분이 여러 사회적 관습을 깨뜨리며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성들을 만나신 일은 그분이 여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분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닿은 여성은 셀 수 없이 많았고, 그 가운데에는 의식상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렇게 해서 당시 널리 지배하던 문화와 달리 여성의 증언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은 법정에서 여자의 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꺼이 기록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여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읽는 바울은 여성을 긍정하는 데 있어 반문화적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구속받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였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제사장이었고, 성령은 그들 위에 똑같이 부어졌으며, 둘 다 서로와 세상을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의 신학의 기본 윤곽은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동등함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짓먹이는 어머니로 묘사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7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깨지기 쉬운 남성적 자존심을 지키는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자였다면 기대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내려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그의 위대한 편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장을 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장을 대충 훑어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매우 흥미로운 장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획한 스페인 선교에 로마 교인들의 지원을 얻으려는 이 편지에서, 그는 로마 가정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정성껏 문안합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의 큰 회중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에서, 흔히

비좁은 셋집에서 모이는 여러 작은 무리였습니다. 16장의 이름들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노예의 이름이고, 어떤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며, 어떤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은 여자의 이름입니다. 브리스가, 드루배나, 드루보사, 마리아, 버시, 율리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로마에 있던 신자들의 작은 공동체를 이끌거나 함께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를 칭찬하는 동역자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그러나 특히 눈에 띄는 세 여성이 있습니다.

뵈뵈

첫째,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또는 여성 집사라고 말하는 뵈뵈입니다. 어떤 번역본은 “여성 집사”를 택했지만, 헬라어에는 그런 여성형 단어가 없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뵈뵈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머물던 고린도의 교회 지도자였다는 데에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 이 시대의 편지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뵈뵈는 어느 정도 명망 있는 사람이며, 바울의 매우 중요한 편지를 로마로 가져가는 일을 맡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낭독하고 받는 사람들에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바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 본 적이 없었지만, 좋은 소식을 제국의 서쪽으로 가져가기 위해 그 그리스도인들의 지원을 얻고 싶어 했고, 그래서 자신이 이해한 복음을 매우 신중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기 편지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것을 로마로 가져가는 지도자인 여성, 뵈뵈입니다.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뵈뵈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여러 가정 교회를 돌아다니며 편지를 낭독하고(읽고 쓰는 능력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편지를 읽기보다는 들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각 무리와 함께 앉아 바울이 말하려는 바를 그들이 이해했는지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뵈뵈와 함께 앉아 편지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읽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녀가 어느 부분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에게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교회 지도자 뵈뵈는, 여성 지도자와 교사에 관해 우리가 바울에게서 들어 온 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브리스가

브리스가, 또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부르는 대로 브리스길라는, 바울이 그녀의 남편 아굴라와 함께 복음 안에서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는 여섯 번 언급되는 가운데 네 번이나 남편보다 먼저 언급되는데, 이것은 그리스와 히브리 문화에서 드문 일이었고, 그녀가 부부의 사역에서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두 사람 모두를—물론 브리스가도 포함하여—예수를 따르는 초기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된 아볼로의 교사로 부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브리스가가 남자들을 가르친 교회 지도자이자 교사였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 두 사람은 로마에 자리를 잡고

가정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문안하는데, 여기서도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유니아

그런데 7절에 나오는 유니아가 있습니다.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예전 New International Version과 몇몇 번역본은 여기서 이름을 유니아스(Junias)로 옮겨 남자임을 암시하지만, 이 이름은 유니아, 곧 노예나 해방된 여성에게 붙이던 라틴어 여성 이름입니다. 당시 문헌에는 이 여성 이름의 예가 많이 있지만, 남자 이름 유니아스의 예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이 이름의 의미를 두고 더 이상 논쟁이 없으며, 새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도 이제 유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니아는 여성이었고, 아마 안드로니코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과거에 유니아를 남자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이 이 부부가 “사도들 가운데 뛰어났다”고 말하는 그다음 말 때문입니다. 남성이 지배하는 교회에서는 여성이 사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남성 학자들은 분명한 여성 이름을 남성 이름, 곧 유니아스로 만들기 위해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바꾸었습니다. 이 역사를 조금 알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헬라어 신약 성경의 편집본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수천 개의 고대 사본을 검토한 뒤 원래 기록을 가장 개연성 있게 재현하는 판본입니다. 종교개혁 때부터 1927년 네슬레(Nestle)의 헬라어 신약 성경 판본에 이르기까지, 헬라어 신약 성경 편집본들에서 로마서 16장의 유니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슬레가 이 이름이 남성이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래서 갑자기 “유니아스”가 등장하고 유니아는 각주로 밀려났습니다. 50년 뒤에는 학자들이 편집한 헬라어 본문에서 그 각주마저 빠졌습니다. 1990년대에 와서야 수정이 이루어졌고, 초기의 모든 헬라어 사본과 학자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니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두가 이에 동의하는데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실제로 말하는 것—여성인 유니아가 사도였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던 나머지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을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으로 바꾸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English Standard Version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말했고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주 잘 알았던 초기 교부들 모두에게, 이 문장의 의미는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이었습니다!

4세기에 크리소스토무스(Chrysostomu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가 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그들 가운데서도 뛰어나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찬사인지 생각해 보라. 존경받을 사람을 존경하라! 이 여인의 지혜가 얼마나 컸으면 사도라는 칭호를 지닐 만하다고 여겨졌겠는가.

유니아는 여성이었고, 사도였으며, 바울 시대의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뵈뵈, 브리스가,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다른 여성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생각할 때 결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 무리에서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지도와 가르침에서 온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로마서 16장과 모순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모든 본문은 이 본문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증언과 함께, 이것이 시작하기에 올바른 자리입니다.

다른 본문들

그렇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의 두 본문은 예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의 배경에 관해서는,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유효하다고 선언하지 못하게 할 만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 나머지 부분의 강력한 증언을 고려하지 않고 단 두 구절만으로 신학적 견해를 세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이 두 본문에 대한 가장 상세한 연구를 필립 페인(Philip B. Payne)의 책 *Mann und Frau: Eins in Christus*(『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남자와 여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페인은 본문을 세심하게 연구한 끝에, 디모데전서 2:8-15는 에베소의 일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거짓 가르침에 맞서려는 바울의 의도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 여성들이 이 가르침을 퍼뜨리는 활동은 억제되어야 했습니다. 이 단락의 어떤 것도 “여성이 가르치거나 남성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뒷받침하지 않으며, “여성은 본성상 영적인 일이나 다른 일에서 가르치거나 남성에게 권위를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이 특정한 금지를 모든 교회와 모든 시대에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34-35에 대한 그의 연구는 훨씬 더 세심합니다. 그는 다른 보수적인 학자들과 함께 초기 헬라어 사본의 증거를 근거로, 이 구절들이 아마 다른 필사자들이 끼워 넣은 것이며 바울이 쓴 원래 편지의 일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본문을 규범적인 것으로, 또는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끄는 여성에 관한 바울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매우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자리의 여성

바울이 교회 안의 여성과 가족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더 넓은 그림을 얻으려면, 바울 서신에서 살펴보아야 할 다른 본문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에서 지배적이던 남성 중심의 관점, 곧 사역과 가르침과 지도에 있어서 여성에 관해 바울이 하는 말을 왜곡해 온 관점을 바로잡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바울이 하는 말을 모두 읽을 때 로마서 16장의 단락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예언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고린도전서 11장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억울하게 나쁜 평판을 얻어 온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수 세기 동안 심하게 불이익을 받아 왔고, 그리스도인 교회는 여성들이 그리스도인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따르도록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것을 놓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의 오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와 교단과 단체가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영혼 돌봄의 일꾼으로서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할 때가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에게는 종이냐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다른 두 구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여성과 남성의 영적 지위가 같다는 사실에 대한 논평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28에 있는 바울의 말,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회적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행 구절인 골로새서 3:11에서는 앞뒤 구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종류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을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미치는 실제적인 결과로 본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복음의 큰 주제들로 우리를 다시 데려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이에 사회적 차이나 계급이나 카스트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민족이나 인종에 따른 분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바울은 여성을 깔아내리고, 차별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접근 방식에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옛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새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주 그리스도를 겸손히 섬깁니다.

묵상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 온 교회들에서 여성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유니아 이야기가 놀랍습니까? 바울이 유니아를 사도들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사도행전과 로마서 16장에서 지도자 직분을 맡은 여성에 관해 말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의 본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지도자 자리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Burnett, Gary W.. Paul Distilled, Wipf & Stock. Kindle 판.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저자의 허락을 받아 다음을 활용하여 번역함: www.deepl.com

2022년 4월 22일